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⑬

一宿覺云 寂寂謂不念外境善惡等事
일숙각운 적적위불념외경선악등사
惺惺謂不生昏住無記等相
성성위불생혼주무기등상
若寂寂不惺惺 此乃昏住 惺惺不寂寂
약적적불성성 차내혼주 성성불적적
此乃緣慮 不寂寂不惺惺
차내연려 불적적불성성
此乃非但緣慮 亦乃入昏而住
차내비단연려 역내입혼이주
亦寂寂亦惺惺 非唯歷歷 兼復寂寂
역적적역성성 비우역력 겸부적적
此乃還源之妙性也
차내환원지묘성야

일숙각이 '고요함이란 외부의 선악 등을 생각하지 않음이요, 깨어있음은 혼미한 마음을 막는 것이다. 만약 고요함만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도 혼미함이요, 깨어있되 고요하지 않으면 그것도 세속의 생각일 뿐이며, 고요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으면 그것은 세속 생각일뿐 아니라 혼미에 빠지는 것이다. 고요하고 깨어있으면 그것은 또렷이 밝을 뿐만 아니라 겸하여 고요함이니,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묘한 성품이다' 하였다.

十疑論註云 無念者 卽是眞如三昧
십의론주운 무념자 즉시진여삼매
直須惺惺寂寂 不起攀緣 實相相應
직수성성적적 불기반연 실상상응
先德云 凡夫有念有知
선덕운 범부유념유지
二乘無念無知 諸佛無念而知
이승무념무지 제불무념이지
如上言教 是修心人 定慧等持
여상언교 시수심인 정혜등지
明見佛性之妙門也 有智之人
명견불성지묘문야 유지지인
切須審詳
절수심상
豈可徒標大意 而便棄修行耶
기가도표대의 이편기수행야

〈십의론주〉에는 '무념(無念)이 바로 진여삼매이다. 고요하고 깨어있어야 반연을 일으키지 않아 실상과 서로 응한다' 하였고, 또 옛스님은 '범부는 생각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이승(二乘)은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부처님은 생각이 없이 안다' 고 하였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서 불성을 밝게 보는 묘문(妙門)이 되는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은 세밀히 살펴야 하는데 어찌서 대의만 표방하고 수행을 버려서야 되겠는가."

問曰諸佛妙道 深曠難思
문왈제불묘도 심광난사
今只令未世衆生 觀照自心 而希佛道
금지영말세중생 관조자심 이희불도
自非上根 未免疑謗 予笑曰前來問意
자비상근 미면의방 여소왈전래문의
何爲自高 此問何爲自卑 且莫草草
하위자고 차문하위자비 차막초초
吾語汝 馬鳴菩薩 撮要百本大乘經典
오어여 마명보살 촬요백본대승경전
造起信論 直標云 所言法者
조기신론 직표운 소연법자
謂衆生心 是心卽攝一切世間
위중생심 시심즉섭일체세간
出世間法 依於此心 顯示摩訶衍義
출세간법 의어차심 현시마하연의
蓋恐衆生 不知自心 靈妙自在
개공중생 부지자심 영묘자재
向外求道耳
향외구도이

물었다. "부처님의 심오한 도는 깊고 넓어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세 중생들에게 자기 마음을 관조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니, 그가 높은 근기가 아니고는 의심하고 비방할 것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에 물은 뜻은 그리도 높더니 지금 묻는 것은 왜 비속한가? 너무 경솔하지 말라. 그대에게 말하리라. 마명보살은 백 권의 대승경전을 추려서 〈기신론〉을 지었는데 그 벽두에 '법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세간과 세간을 벗어난 법을 포섭하였으므로 이 마음에 의해 마하의 큰 뜻을 나타낸다' 하였다. 이는 중생이 제 마음이 신령스럽고 자재함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도를 찾을까봐 걱정해서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법이란 것은 중생의 마음인데 중생은 밖에서 도 찾으려 한다

큰 스님과의 대화

우룡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돌고 돌아 도착한 경주 함월사(含月寺). 나무들이 오밀조밀 숲을 이룬 삼릉숲을 지나니 숨어있다 자취를 드러낸 듯 함월사가 나타났다. 길을 찾아 헤매던, 조금은 짜증스런 마음은 어디 가고 반가운 마음에 금새 기분이 풀어져 아래채에 있는 진돗개를 어루만지며 여유도 부려보았다. 찾지 못했을 뿐 본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겠지 하는 깨달음을 추스르며 우룡(雨龍)스님을 뵈었다.

한해를 마감하고 또 한해를 새로 맞게 되는 이 시점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과 현재의 자신을 돌이켜 보게된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어선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보다는 아쉽고 참회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우룡스님께서는 불자들은 언제나 참회발원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발전이 있다고 강조하셨다.

달을 품었다는 뜻의 함월사. 달을 삼키면 너무 어둡고 달을 토하면 또 너무 밝으니 달을 삼키지도 토하지도 않고 머금고 있다는 뜻이다. 스님께서는 달을 머금은 듯 들이고 냄이 자유롭게 생활 속에서 알뜰하게 실천해 나갈 때 한해 살림살이 넉넉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참회하고 실천하면 복밭"

- 1932년 일본서 출생
- 47년 해인사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 55년 동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 강사 역임.
- 수덕사 능인선원, 직지사 천불선원, 쌍계사 서방장, 통도사 극락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 현재 울산 학성선원에 주석
- 저서에 〈물교신행의 주춧돌〉〈영가천도〉 등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고 진실로 참회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일러주십시오.

▲옛 어른들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해가 바뀐 것 같지만 쳐다보아라, 하늘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하는 말로 시작과 끝을 나누는 어리석음을 경책했어요. 한해 마무리니 뭐니 하는 것을 모두 망념이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두 조각이 난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일 매일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이 넘어갔느니, 일년이 갔느니 하는 얘기가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일도 미루고 넘어간 일은 자꾸 되새기며 망상속에서 허우적거려요. 불교인에게는 운명학이든지 숙명론이 해당이 안돼요. 불교는 언제나 현재뿐이고 현재에 충실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잘못되어 30%의 결실밖에 못 얻을 것이었다고 해도 노력에 따라 70~80%까지 보충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현재에 게으름을 피우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이 잘못되었더라도 현재의 노력으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원인이 아무리 좋더라도 현재의 내 실수로 결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살아오는 동안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저지른 잘못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온 시간들을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역시 현재를 잘 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해도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지난 시간을 참회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내 앞에 오는 것을 여실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용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회는 단 한번에 뚝딱 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듯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10년 잘못했으면 10년이 걸리든 11년이 걸리든 원점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10년을 실수 해놓고 한 번에 풀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주의 섭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씨앗을 가꾸어도 그 결실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하는데 오랜 실수나 잘못을 젊 몇 번이나 기도 몇 번에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우주섭리에도 맞지않는, '욕심'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원인을 살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려는 철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참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불 잘하셔야 합니다. 예불 잘해야 된다고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상이나 부처님 그림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되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사이에서 하는 참회나 예불이 진실한 예불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돌아가신 대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부모님 계신 곳을 보면서 '아버지, 잘못한 것 참회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 순탄하소서' 하고 항상 예불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 부모는 자식을 향해 그렇게 간절하게 참회하고 예불드리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공덕이 됩니다. 나는 가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법당에 와서는 무릎을 안 꿇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자식, 며느리에게 무릎을 구부리고 절을 해라. 그것 이상 간절한 예불은 없고 그 이상 간절한 참회는 없다고 말입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많은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어렵게만 여기고 실천하지 않는 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스럽게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가 유식하고 큰스님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요.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스님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신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라야 되는데 한국불교도가 가장 모자라는 것이 실천이잖아요. 그러니 설 자리를 자꾸 잃어 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말로만 대승불교, 대승불교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불교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천을 하려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라는 놈부터 알아야 됩니다. 단적으로 빛깔도 없고 모양도 빛도 냄새도 없는 게 부처입니다. 눈꺼풀에 걸리지 않는 여기에 무서운 기운이 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는 기운, 태풍이 모든 걸 쓸어버리는 기운,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리는 기운, 물이 모든 걸 자취도 쓸어버리는 기운이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속에 있어요.

2001년 1월 1일 개 원 (서울)

마음을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여래선) 신문 수행처.

근본불교 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 Dagon Yangon Myanmar
95-01-70-3877

法山 붓다피아(Buddhapya)스님 직접지도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잠신만을 의지하여 쉼 없이 정진하라!
(붓다의 마지막 유훈)

서울	에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20
	일반수행반	매주 월, 수, 금 - 오전 10:30~12:30, 오후 7:30~9:30
	주말정진반	매주 토, 일 - 오전 10:30~12:30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화, 목 - 오후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오후 8:00~익일 03:30

■ 수행일정표
서울 (禪院)의 숲日은 금강경과 아함경(원시경전의 계승집)을 강설함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60M 근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500M 근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 닝양곤에 위치 (직접 문의)
■ 여래선원(대구)
선우회 회장(입승) 無我 한승세
부회장 飛散 · 이영태 부회장 功德華 한정숙
총 무 東安 정호엽 기 획 度綠草 이정헌
총 무 度綠華 조은수 재 무 甘露華 오인숙
포 교 菩提華 오인순

제1회 3천 3백 3십 3배 특별정진

"큰 업장 108 번뇌 즉시 녹이고
큰 소원 한가지는 필히 이뤄라"

소리산 출세봉, 해탈봉, 반야봉, 피안봉의 신령스런 길상지 수행전문도량에서 환희심으로 가슴벅찬 감동을 체험하시고 부처님 밝은 빛으로 방광하심의 가피를 입게됩니다.

■ 정진내용
1회 (3배+108배)+(3배+108배)+(3배+108배)
= 333배 (45분+5분 축원기도+10분 휴식)
~10회+3배 = 3333배
※ 절을 못하시는 분은 부처님 크신은히 고맙습니다. 를
·절 한번에 3회 염송하시게 됩니다.
■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 일 시 2000. 12. 30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7시
※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의 지도하에 일괄적으로 절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6736(팩스겸용)
▣ 오시는길
⊙ 서울 상봉터미널~모곡행 버스 종점 하차. 전화 요
⊙ 서울 대명관광 [02) 538-7300] 홍천 대명스키장 하차. 전화 요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 1-제 3단계, 3일정도 소요.
교 육 비 : 전수요금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자연식 식사 / 生 - 선식

火食百食而不 Good · 生 - 禪食
(화식백번을 먹는것이 생선식 한번 먹는 것 보다 못하다)

'생' 선식 하나로
비만 피부 체질 피로 기운 면역력 혈액순환
쏙쏙 재생 싹싹 회복 쑥쑥 상승 원활
건강 O.K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옛비법의 전통선식 전문 상 기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전 화 080-737-0044
소비자상담실 02-723-4463-4